2018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해외 출장 결과보고서

- 선진국 가족지원제도 연수 (독일, 룩셈부르크) -

2018.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Ⅰ 연수 개요

1. 연수 목적

□ 아이돌봄 및 공동육아(가족품앗이) 관련 선진 가족정책연구를 벤치마킹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정책서비스 수행의 발전방안 모색

□ 공동육아(가족품앗이) 사업의 대표모델인 독일의 마더센터의 운영현황, 사업평가 방법 등을 파악하여 사업의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가족정책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사기진작

2. 연수 개요

□ 연수 기간 : ’18. 1. 20.(토) ~ 1. 27.(토) (6박 8일)

□ 연수 국가 : 독일 및 룩셈부르크

□ 연수단 구성 : 총 5명(이00 부장 외 본부별 1인)

□ 방문 기관

국 가	방 문 기 관	면 담 자
독일	가정형 돌봄기관 (Tagesmutter)	Xin Braun(신 브라운)
	디아코니 사회봉사단체 (Diakonisches Werk Trier)	Carsten Stumpenhorst(카르스텐 슈틈펜호르스트) 외 1인
	카리타스(Caritas)	Christiane Duro-Theis(크리스티아네뒤로-타이스)
	패밀리센터 트리어 (Familienzentrum in Trier FaZit e.V.)	Monika Krever(모니카 크레버) 외 1인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Werner Theis(베르너 타이스) 외 2인
	마더센터	Angela Sgro(안젤라 스그로) 외 2인
룩셈부르크	커넬스쿨재단	-

3. 주요 일정

일자	지역	방문기관
01.20.(토)	인천 프랑크푸르트	인천국제공항 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착
01.21.(일)	트리어	트리어 이동
		카리타스 재단 오찬
01.22.(월)	트리어	가정형 돌봄기관 면담
		룩셈부르크 이동
	룩셈부르크	캐널스쿨재단 방문
01.23.(화)	트리어	디아코니 재단 면담
		카리타스 재단 면담
01.24.(수)	트리어	패밀리센터 면담
		트리어시 가족·노인·청소년청 면담
01.25.(목)	잉겔하임	잉겔하임 이동
		마더센터 오찬
		마더센터 면담
01.26.(금)~ 01.27.(토)	프랑크푸르트 인천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발 인천 국체공항 도착

4. EU의 가족정책의 이해

□ 주요 정책

○ EU 소속 대부분 국가들은 유사한 형태의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동'의 양육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이 구성되어져 있음

○ 아동 양육을 위한 각종 수당과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최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아젠다로 설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구체적 수당 기준 등은 각 국가별로 상이

□ 독일의 가족정책 사례

○ 수당 지급 제도

- 아동수당(Kindergeld)
  - 1975년부터 자녀가 있는 모든 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지원금으로 만18세까지 지급하며, 자녀가 대학과정 시 최대 25세까지 지원
  - 장애아는 수급 연령 제한이 없으며, 위탁 등으로 생긴 편입아동에 대한 아동 수당도 지급
  - 자녀수에 따라 아동수당 차등 지급(1명 192유로, 3명 198유로, 4명 223유로)
- 부모휴직수당(Elterngeld)
  - 1년간 또는 2년에 걸쳐 이전 수입에 따라 최소 300유로~최대 1,800유로(순수입의65%~100%)까지 지원
  - 남성이 육아휴직을 2개월 신청하면, 부부모두에게 추가 2개월의 육아휴직을 주는 12+2 제도를 운영

- 육아수당(Betreuungsgeld)
  - 맞벌이 부모의 가정 보육 시 아동 1인당 150유로를 지급(2세~4세 아동)
- 아동추가수당(Kinderzuschlag)
  - 아동수당(Kindergeld) 제도를 보완 제도로,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에 수당을 지원
  - 소득이 최소 900유로 이하인 가정, 한부모 가정일 경우 최소 600유로 이하의 가정 중 자녀 연령이 만25세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매월 170유로 지급(아동수당(kindergeld)와 함께 지급)되며, 이외에도 실제 수업료, 학용품, 통학 등에 드는 비용도 지원

○ 가족서비스 제공기관

- 마더센터
  - 독일 전역에 400개 마더센터 운영
  - 관주도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풀뿌리 지역운동이 모태이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지역 사회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모임으로 진화(가족센터)
  - 지역에 기반하고 지역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 그 지역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조직화한다는 점이 특징임.
  - 부모가 육아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서로 돌보고, 각자의 재능을 발견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 자조(self-help)와 역량강화(empowerment)를 모토로, 누구나 자신의 장점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는 것을 목표로 함.
  - 열린 공간, 아이들도 함께 한다, 누구나 능력을 갖고 있다, 인정을 해주는 문화라는 4가지 운영철학이 존재
- 가족센터(familienzentrum)
  - 교육・보육・돌봄을 위한 가족센터로 어린이집의 기능을 확장

- 한지붕 모델, 파일럿 모델, 갤러리 모델 등 다양한 모델로 운영
-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가족·보육서비스 제공, 지역 내 가족친화 인프라 구축

□ 룩셈부르크의 가족정책 사례

○ 수당 지급 제도

- 아동수당(CAE)
  - 자녀가 있는 모든 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지원금으로 만18세까지 지급하며, 자녀가 대학과정 시 최대 25세까지 지급
  - 1인당 265유로 지급
  - 장애아는 25세까지 수당지급이 가능하며 1인당 200유로 지급
- 출산수당
  - 태아수당/출산수당/출생 후 수당으로 분류하며 총 1740.09유로 지급(3회 분할지급 가능)
-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 수당은 근무형태별로 다양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4~6개월 풀타임 휴직 신청 시 1998.59유로 ~ 3330.96유로를 지급
- 학교수당
  - 매월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학교수당으로 115유로(6~12세)~235유로(12세 이상) 지급
- 보육바우처
  -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CSA (Chèque-Service Accueil) 바우처 발급으로 보육 비용의 일부 충당지원

○ 가족서비스 제공기관

- 가족상담 및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들은 업무수행을 위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재 국가 승인 받아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10개로 정부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음

Ⅱ 연수 세부내용

1 방문 기관

가. 가정형 아이돌봄 서비스

□ 면담 개요

○ 일 시 : 2018. 1. 22. (월) 10:00 ~ 11:00

○ 면담자 : Xin Braun(신 브라운) 트리어시 청소년청 소속 아이돌보미

○ 장 소 : 아이돌보미의 가정 내 아이돌봄 공간

□ 면담 내용

1) 청소년청 소속 아이돌보미 자격

○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음

○ 청소년청 신청 → 심사 → 아이돌봄 교육 이수 → 자격 부여

○ 자격 심사 - 지원자의 가족문제 여부, 장소 실사, 안전 점검 등

2) 가정형 아이돌봄 서비스

○ 이용절차

- 부모가 반드시 자녀와 함께 청소년청을 방문하여 신청 → 청소년청이 지역내 가정형 아이돌보미 리스트 제공 → 부모가 직접 가정형 아이돌보미 집을 방문하여 아이돌보미와 면담, 돌봄 환경 확인 후에 이용 기관 선택 → 계약체결, 세부 규칙 논의

○ 계약

- 6개월마다 계약 갱신
- 계약조건 상세 명시: 지각 규정, 유의사항, 기저귀 지참, 간식 등

○ 이용료

- 청소년청에서 아이 1명당, 시간당 5유로 지원(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부모와 아이돌보미가 개인적으로 협의하여 정함)
- 부모의 소득증빙 자료 제출 →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 산정
- 장애아의 경우 청소년청의 지원금이 더 많음
- 비용은 반드시 은행거래로 지급

○ 이용시간

- 청소년청에서 일주일에 최대 35시간 비용 지원, 추가 이용시간에 대한 비용은 부모 개인 부담
- 부모와 청소년청이 협의하여 이용 시간을 정함(야간시간대 추가비용 없음)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침

○ 아이돌보미 1명이 최대 10명까지 접수를 받을 수 있으나, 동시간대에 최대 5명까지 돌봄 가능

○ 아이돌보미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아이돌보미 네크워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고, 2명까지는 아이돌보미의 개인적인 용무에 데리고 갈 수 있음. 단, 부모에게 사전 고지해야 함

○ 업무 실적 보고 시스템 없음. 연간 최소 5회 이상 아이돌보미 교육 프로그램 필수 참가

○ 이용 아동에 대한 보험 가입 필수, 보험료는 청소년청에서 지급

○ 민원 처리: 먼저 부모와 아이돌보미가 대화,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청소년청에 개입 의뢰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소년청에서 아이돌보미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4) 아이돌보미에 대한 대우

○ 1일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1년에 유급휴가 3주(휴가일정 부모에게 사전 고지 필수)

○ 4대보험 보험료의 50% 청소년청에서 부담

□ 면담 사진

	
가정형 아이돌보미 면담 모습	가정형 아이돌보미와 단체사진

나. 캐널스쿨재단

방문기관: Kennerschlass Fondation
기관주소: 12, rue Winston Churchill L - 4434 Soleuvre
전화번호: +59-59-59-59
홈페이지: www.kannerschlass.lu

- 룩셈부르크 가족부 등과 협약을 맺은 비영리 단체로 1950년대 설립
- 전쟁 중 부모를 위한 아이들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룩셈부르크 아동, 청소년 및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상담, 보육 서비스를 제공

□ 방문 개요

○ 일 시 : 2018. 1. 22.(월) 14:00-15:00

○ 장 소 : 캐널스쿨재단

□ 방문 내용

○ 기관 사정상 면담이 어려워, 시설탐방으로 대체

□ 방문 사진



캐널스쿨재단 단체사진

다. 디아코니 재단

□ 면담 개요

○ 일 시 : 2018. 1. 23. (화) 10:00~12:00

○ 면담자

- Carsten Stumpenhorst(카르스텐 슈톰펜호르스트) 디아코니 트리어 대표
- Gudrun Zimmermann(구드룬 찜머만) 임산부 상담 담당자

○ 장 소 : 디아코니 트리어 회의실

□ 면담 내용

1) 디아코니 트리어 운영 개요

○ 트리어 지역 디아코니 소속 활동가: 140명

○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및 상담 업무 중심

- 임산부, 가족·부부, 도박, 난민 상담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 제공
- 대면상담, 방문상담, 방문케어 등

○ 재정 현황

- 자체 기금: 30% 차지(대부분 종교세)

- 서비스 분야별 지원금 예) 난민-연방정부, 임산부-지자체 등
- 후원금

○ 이용 절차

- 서비스 이용자 방문 → 사회복지사 상담, 주호소 문제 사정 → 지원 분야 결정 → 필요 서비스 연계

2) 디아코니 트리어의 상담 서비스

○ 부부·가족상담, 이혼상담

- 당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정 중시, 심리상담 및 관련 서비스 연계
- 이혼 전 갈등, 자녀가 겪는 어려움에 초점

※ 디아코니: 법원 지정 상담기관, 상담 후 법원에 의견서 제출

- 이혼 후 자녀의 양육·복리 관련 상담

○ 임산부 지원

- 임신 및 출산 관련 전반적인 상담(경제상황, 심리상태 등)
- 저소득 임산부 재정 지원
- 원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상담
  - 독일, 낙태가 금지되어 있으나 12주 이내에 법원 지정 상담 기관에서 상담 받은 증빙이 있는 경우 낙태 가능
  - 낙태 결정 후 죄책감, 우울감 등을 위한 심리상담
  - 저소득 임산부 낙태비용 지원
- 피임, 성교육, 인생 계획 수립 교육 등 예방적 프로그램 제공
- 연간 450~500건 상담 진행

○ 특화 프로그램 [Wellcome] - 출산 후 가족지원 프로그램

-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선제적 지원
-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 인력이 없는 경우, 자원봉사자가 방문하여 아이돌봄, 장보기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 디아코니에서 가정방문하여 필요사항을 확인한 후 개입 계획 수립, 가족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와 가족을 적절히 매칭
-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 후 모든 가족 지원
- 청소년청에서 예산 지원 받음
- 출산 후 최대 1년 지원(주 1~2회, 매회 3~4시간)
- 전문위원회: 디아코니, 청소년청, 상담전문가, 소아과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전문 서비스 연계방안 모색

○ 중독 상담
- 알코올, 약물 등 중독 관련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연계

○ 법률 상담
- 무료 법률 상담 및 무료 법률 지원 연계

○ 채무자 파산 상담
- 파산 전 위기상담, 최소 생활 보장 지원

○ 난민 상담
- 사회적응 교육, 심리상담, 건강·성병 등에 관한 예방 상담
- 예술치료 등 치료 프로그램 및 독일 정부 제공 의무 언어 교육 과정 진행

○ 이민자 상담
- 직업·주거 등 적응 관련 1:1 상담

※ 이민자를 위한 국가 제공 무상 언어 교육 프로그램 없음

□ 면담 사진



디아코니 직원들과 면담 모습



디아코니 직원들과 단체사진

라. 카리타스 재단

방문기관: Caritasverband für die Diözese Trier e.V.
기관주소: Sichelstraße 10, 54290 Trier
전화번호: +49-0651-20960
홈페이지: www.caritas-trier.de

가톨릭교회 봉사조직인 카리타스는 병원, 요양원, 유치원, 장애인그룹홈(기숙사) 및 작업장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약 50만명의 직원이, 독일 전역에 2만 5000개의 시설에서 약 120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함

□ 면담 개요

○ 일 시 : 2018. 01. 23.(화) 14:00 ~ 17:00

○ 면담자

- Christlane Düro-Theis(크리스티아네 뒤로-타이스) 가정지원 서비스부 대표
- lrmtrud Lauer(이름트루트 라우어) 아동주간보호시설 담당
- Gaby Picoolo(가비 피콜로) 카리타스 베스트-아이펠 지역 대표

○ 장 소 : 카리타스 재단 회의실

□ 면담 내용

1) 카리타스의 가족지원서비스

○ 출생~사망까지 생애주기 전반에서의 포괄적 지원을 목표로 '예방'에 중심을 두고 있음.

○ 트리어교구 내 총 33개의 상담기관, 하루 평균 230건의 상담진행

○ 가족 상담 뿐만 아니라 난민, 약물중독 등 포괄적인 분양에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 상담의 내용에 따라 상담소가 특화되어 있음. 가족의 처한 문제를 사정하여 적합한 기관과 연계

- 결혼·부부상담 및 교육- 트리어 교구 내 상담소
- 위기문제에 관한 상담- 카리타스 재단 내 상담소

※ 임산부 등 특정 분야는 전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음

○ 임산부에 대한 상담은 전액 국가예산으로 운영되고, 약물중독의 경우, 주 또는 시의 예산으로, 가족상담 예산의 경우, 종교세를 이용하여 카리타스 교구에서 자부담

특화서비스 소개 [Family Care]

- 젊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가사지원서비스에서 시작한 Family Care를 상담서비스로 확대, 가족문제를 예방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 트리어교구 내 10개의 센터가 있으며, 카리타스 베스트-아이펠 지역의 Family Care 센터의 경우, 총 6개의 행정구역을 관리하고 있음. 59명(팀장 4명 포함)의 정규직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총 150가구를 지원하고 있음.
- 운영 재정은 의료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의 회사와 연계하여 회사 직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회사차원의 지원 가능(현재 18개 회사와 연계, 트리어대학이 대표적)

2) 카리타스의 자녀돌봄 서비스

○ 어린이 주간 보호시설 운영 개요

- 160년 전, 프뢰벨의 저소득층 아동 돌봄지원(단순돌봄)을 계기로 시작된 어린이 주간 보호시설은 1960년대 냉전기 시대(러시아의 과학기술 발전에 경각심 등)를 지나며, 교육의 기능이 추가된 형태로 발전
- 독일에서도 여성들의 권리신장, 취업활동, 출산율 저조들의 문제로 어린이 주간 보호시설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실정

※ 트리어가 속해있는 라인란트 팔츠주는 독일 전 연방에서 유일하게 2세 이상 아동의 무상돌봄을 실현하고 있는 주(타 주의 경우, 3세 이상)

○ 어린이 주간 보호시설 운영 형태

- 시 자체에서 시설을 제공하고, 운영권을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

며, 직영보다는 위탁 권장, 민간기관에 우선권을 주고 있음.

- 이에 따라 약 540개의 어린이 주간 보호시설을 위탁 운영 중
- 5년 마다 주간 보호시설을 점검하나, 평가보다는 개선점을 발견하여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부모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어 수시로 점검
- 운영의 대부분이 주정부에서 지원하고, 일부분을 교구에서 자부담하고 있음

□ 면담 사진

	
카리타스 직원들과 단체사진	카리타스 직원들과의 면담 모습

마. 패밀리센터

방문기관: FaZiT, FamilienZentrum in Trier e.V
기관주소: Balduinstraße 6, 54296 Trier
전화번호: +49-0651-9916358
이 메 일: info@fazit-trier.de
홈페이지: www.fazit-trier.de
교육・보육・돌봄을 위한 가족센터로 어린이집의 기능을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음

□ 면담 개요

○ 면담시간 : 2018. 01. 24.(수) 10:00 ~ 12:00

○ 면담자

- Monika Kreber(모티카 크레버), 패밀리센터 트리어 아이돌봄 팀장
- Elmar Kreber(엘마 크레버), 패밀리센터 트리어 이사

○ 장 소 : 패밀리센터 트리어 FaZit 사무실

□ 면담 내용

○ **FaZit의 운영형태**

- 지역에 이사 온 사람들의 교류를 목적으로 부모주도로 1998년 설립
-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 형태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차원에서 자녀돌봄기능 추가, 이후 정보제공 차원에서 강연, 교육 등 프로그램 으로 확대
- 현재는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형태(시 관리×)

※ 공공임대시설에 입주(임대료, 관리비 등 자체부담), 시와 주정부로부터 약간의 지원을 받고는 있으나, 재정 부족하여 기부·후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공간대여, 바자회 등) 진행

- 트리어 지역 내 0~3세 이용가능한 주간 보호시설은 700자리 정도 부족, 현실 부족한 서비스의 공급을 FaZit와 같은 패밀리센터가 담당

○ **FaZit의 운영현황**

- 0~3세의 유아가 돌봄대상, 현원 10명, 정규직 2명, 계약직 1명의 교사가 상주

※ 청소년청 기준안 - 돌봄아동 5명당 정규인력 1인 필수, 10명 이상 돌봄 시 그룹을 분리해서 돌봄진행

- 오전 8시~ 오후 2시까지 정규 운영시간으로, 이용자들이 요구는 점차 이용시간에 대한 요구가 길어지는 추세임.

- 이용료 : 25개월 이상 즉, 만 2세 이상은 무상지원, 2세 미만아동의 경우, 주5일, 오전 8시~ 오후 2시까지 돌봄 시 420유로(시간당 14유로)

※ 트리어시가 속해있는 **라인란트 팔츠주 전 연방에서 최초로 유치원 돌봄을 무상 지원함**

□ 면담 사진

<table>
<tr><td></td><td></td></tr>
<tr><td>Fazit 직원들과의 면담 모습</td><td>FaZit 시설(놀이터)</td></tr>
<tr><td></td><td></td></tr>
<tr><td>Fazit 직원들과의 단체사진(내부교실)</td><td>Fazit 직원들과의 단체사진(주출입구)</td></tr>
</table>

바. 트리어시 가족 · 노인 · 청소년청

방문기관: jugendamt Trier 기관주소: Verwaltungsgebaude II, Am Augustinerhof, 54290 Trier 전화번호: +49 651 7183508 홈페이지: www.trier.de 트리어시 가족 · 노인 · 청소년청 직원 200명(본부: 100명(공무원)/ 산하운영시설100명) 주요업무 ① 어린이보호주간시설 운영관리 ② 양육비 지급 운영관리 ③ 양육관련 교육 운영 관리 ④ 난민청소년 관리 ⑤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관리 ⑥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

□ 면담 개요

○ 일 시 : 2018. 01. 24.(수) 13:30 ~ 16:30

○ 면담자

- Werner Theis(베르너타이스), 아이돌봄부서장
- Helten(헬텐), 양육비집행권원 담당
- Metxmann(메츠만), 양육비선지급 담당

○ 장 소 : 아이돌봄부서장 사무실

□ 면담 내용

1) 트리어시 가족 · 노인 · 청소년청의 자녀돌봄 관련 사업

○ 육아휴직 수당 지급 : 당사자의 소득에 따라 최대 1,800유로(최대 1년), 최소 300유로 내에서 지급

○ 돌봄기조

- 아이를 시설에 오래 맡기는 것 자체가 아동의 복지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설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있음.
- 3세부터 사회성 발달을 위해 유치원 이용 권장

2) 청소년청의 양육비 지원 관련

○ 조직

- 독일 라인란트-팔츠주의 3번째 큰 도시로 인구 10만 명의 트리어

시를 관할하는 트리어시 청소년청에는 양육비 선지급 담당팀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고, 양육비 집행권원 담당팀에는 8명이 근무하고 있음

○ 주요업무

- 청소년청에서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또는 지급할 수 없을 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양육비 집행권원을 만들고, 구상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 예산

- 양육비 선지급 예산은 연방·주·시가 각각 1/3씩 부담하게 되는데, 발생되는 양육비 선지급금은 무조건 지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의 상한이 없고, 예산 규모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지 않음

○ 양육비 선지급

- 2017년까지는 12세 미만의 자에게 최장 72개월 선지급하였으나, 2017년 7월 시행된 양육비선지급법개정으로 일정 요건[1] 하에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선지급하고 있음
- 양육자가 청소년청에 양육비 관련 지원을 요청하면 신청시점부터 양육비 선지급까지 2주 소요됨[2]

○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절차

- 양육비 집행권원 담당팀에서 법률지원이 필요한 양육자에게는 인지 소송 등을 지원하여 비양육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양육비 집행권원(양육비 타이틀 titel[3])을 확보

---

1) 자녀가 사회법 제2법전에 따른 급부를 수령하지 않고 있거나 양육급부로 인하여 사회법 제2법전 제9조에 따른 다른 지원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는 경우, 또는 비양육자가 아동수당을 제외하고 사회법 제2법전 제11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최저금액 600유로의 수입이 있는 경우(독일 양육비선지급법 제1조 1a항)

2) '부양의무를 가진 한부모는 양육비 선급에 의해 자신의 의무가 경감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는 즉각 양육비 선급의 동의에 대해서 통보를 받고 지불이 요청된다. 부양의무자는 소득과 재산에 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후에 청소년청에 의해 양육비계산이 이루어진다.' (김승권, 자녀양육비가이드라인마련연구,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p105.).

3) 집행증서(titel)는 채무의 집행수락의 동의(Schuldanerkenntnis)를 기재한 공정증서로서, 집행권원(채무명의 혹은 집행명의)의 한 종류임. 집행증서는 채무자의 광범위한 의무와 연결되어 있음(김승권, 자녀양육비가이드라인마련연구,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p9.)

하고 있음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세부 절차>

① 양육자가 청소년청에 신청하면, 청소년청 담당자가 비양육자에 질문지*를 발송함(*직업, 채무 등 신용, 급여, 부동산 등 재산 상황, 자녀 유무 여부 등 확인)

② 담당자가 비양육자가 지급할 수 있는 적정 양육비를 산정하고 비양육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③ 비양육자가 동의하면, 양육비 집행권원이 만들어짐[4)]

④ 비양육자에 3번 정도 서면을 보내고, 비양육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답변이 없으면 소송으로 다투어 법원의 결정을 받음

- 산정된 양육비를 비양육자가 스스로 지급하는 비율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지는 않음. 양육비 집행권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대체로 이행이 되게끔 만들어 지는 편이라고 봄
- 비양육자가 모든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소득수준이 너무 낮고 적정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월 70유로 정도로 낮게 양육비 집행권원이 정해질 수 도 있음. 월 소득이 1,080유로 이하인 비양육자는 양육비 부담 없음. 상황에 따라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여건임에도 일을 하지 않아서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 양육비 지급은 비양육자가 청소년청에 양육비를 지급하면, 청소년청에서 일주일에 2회 양육자에게 지급함

○ 양육비 선지급금 구상

- 트리어시 청소년청의 양육비 선지급금에 대한 구상율은 25~30% 정도 되고, 다른 시의 청소년청들에 비해 구상율은 높은 편임[5)]

4) 청소년청에서 양육비 집행권원 확정을 위한 청구양식의 작성을 돕고, 법원의 간이절차를 통한 결정으로 양육비를 확정한다고 함(김승권, 자녀양육비가이드라인마련연구,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p106)

5) 독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구상권에 따른 비용 회수율은 굉장히 높을 경우 약 30%, 그렇지 않으면 평균 20% 수준을 상회하는 정도(정재훈(2014), <아동양육비 지원체계 국제비교>, 이슈브리프 2014 여름호, p.53)

구상율을 높이는 특별한 요소가 있지는 않음

-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비양육자에 대해서는 모두 구상하고자 하나, 나이는 40세의 남성이라도 뇌졸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봄
- 200유로 양육비 선지급금이 산정된 경우, 청소년청에서 비양육자와 월 70유로의 양육비 집행권원이 작성되었다면, 차액인 130유로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에서 지급하는 범위로 보며, 구상 대상이 아님
- (정보접근권)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비양육자의 소득·재산과 관련한 정보는 전산조회 할 수 있고, 더 필요한 정보는 청소년청에서 직접 관련 기관에 요청하여 정보를 열람 가능

□ 면담 사진

	
트리어시 시청사 앞에서	청소년청 직원들과 단체 사진

사. 잉겔하임 마더센터

방문기관: MütZe, Mütter-und FamilienZentrum Ingelheim e.V. 기관주소: Bahnhofstr.119, 55218 Ingelheim 전화번호: +49 06132 714490-10 홈페이지: www.muetze-ingelheim.de 독일의 마더센터는 1980년 처음 시작되어 현재 독일 전역에 400여개가 운영 중임 관주도가 아닌 엄마들의 주도로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지역사회 내의 가족-이웃 공동체 재건

역할을 하고 있음. 현재는 0세~14세 아동을 수용하고 있으며 6세 이하는 유치원의 형태로 7세 이상은 방과후 교실로 이용하고 있음

□ 면담 개요

○ 일 시 : 2018. 1. 25.(목) 10:00~14:00

○ 면담자 :

- Angela Sgro(안젤라 스그로), 잉겔하임 마더센터장
- Ute Latzel(우테 라첼), 바트 라우하임의 마더센터장으로 마더센터 연방연합 이사
- Christiane Liebendorfer(크리스티아네 리벤되르퍼), 림부륵의 마더센터장으로 마더센터 연방연합의 대표이사

○ 장 소 : 잉겔하임 마더센터 회의실

□ 면담 내용

1) 잉겔하임 마더센터 운영개요

○ 건물은 시소유로서 소정의 임대료와 사용 실비 부담

○ 마더센터 운영현황

- 지역내 엄마들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초기 모델은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지 않음
- 태어날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아동 보호 및 양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0세~14세까지 아동 60명 수용
- 직원 24명이 20~30시간 근무
- 초기에는 엄마들의 품앗이 활동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시지원금으로 운영되며 이에 따른 교사 채용 및 운영진행. 엄마들은 다양한 자원봉사의 형태로 도움지원

○ '마더센터 연방연합'을 구성하여 간담회, 자조모임, 포럼, 토론회 등을 통한 질제고 노력

○ 학부모 위원회를 통한 운영방향 수립 및 운영

2) 잉겔하임 마더센터 가족지원서비스

○ 영유아 돌봄을 위한 유치원 운영

- 대상 : 0세~6세 아동
- 정원 : 25명
- 운영시간 : 07:30~17:00

※통상 독일의 유치원은 15시 하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학령기 아동 돌봄을 위한 방과후 교실 운영

- 대상 : 7세~14세 아동
- 정원 : 35명
- 운영시간 : 방과후 ~ 17:00(단, 1,2학년은 15시까지)
- 프로그램 : 점심제공 및 숙제 지원, 자기개발 활동 등

○ 초보 부모를 위한 '젊은 부모 상담의 장' 운영

- 주 2회 아침식사를 제공하면서 아동양육에 대한 정보교환 및 부모교육 운영

○ 양육지원 프로그램

- 베이비맛사지, 수유교실, 산전후 요가 등 프로그램 운영

○ 기관 연계 프로그램

- 마더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와 연계를 통한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역할 진행
- 취학전 건강검진 프로그램 : 마더센터에서는 공간을 제공하고 병원 등에서는 건강검진을 제공하여 취학전 아동의 건강검진(필수) 지원
- 부모교육 : 부모교육 및 상담 수요가 있는 가정을 지역내 카리타스와 연계
- 시설 내 호스피스 기관, 양부모지원기관을 입주시켜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사업운영 활성화

3)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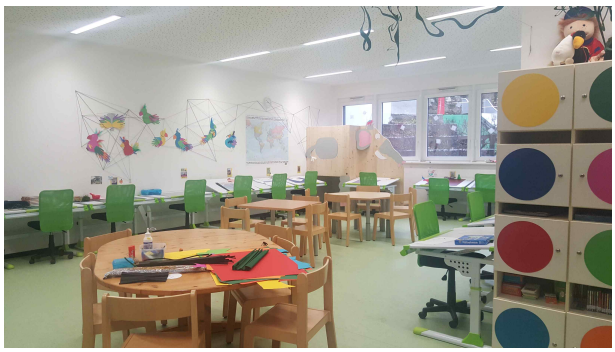
○ 예산 : 마더센터 내 수용인원에 따라 배정하여 청소년청에서 지급하며 지자체 추가지원 및 프로젝트 사업 참여로 구성

※공간크기 등에 따라 수용인원 상이하며 아동당 연간 2,500유로 지원

○ 보고 : 연 2회 청소년청에 실적보고. 실원원위주의 이용자를 보고하며, 관련하여 별도 보고 서식 작성 후 송부

○ 독일연방정부의 '기본 법' 수립에 따라 각 주별 별도 정책 수립. 이에 따른 기관의 사업 자율성 보장의 형태로 전반적 사업 운영

□ 면담 사진

	
마더센터 직원들과 기념촬영	잉겔하임 마더센터 내부_고학년 교실

2 출장성과, 시사점 및 업무 활용 계획

가. 돌봄관련

□ 출장성과

○ 독일 및 룩셈부르크의 저출산해결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아동중심 지원제도 실행기관 탐방 및 담당자 면담

- 독일의 저출산 및 일가정양립의 핵심정책은 아동복리를 최우선으로 수립되어 있음
- 독일의 가족제도는 EU의 대부분 국가와 같이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아동수당을 통한 다양한 돌봄제공 및 가족상담, 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 형태로 정책실현

○ 독일은 연방국가로 중앙정부에서 '기본 정책 계획' 수립 후 정책 방향성에 맞춰 각 연방(주) 마다 실행계획 별도 수립하며, 주-시가 중심이 되어 기관위탁형태로 정책운영

- 예) 기본 정책 : 아동돌봄지원을 위한 아동수당을 지급
  라인란트팔츠주 : 유아원 및 유치원 비용 전액 지원
  ※ 독일 내 유일

○ 명확한 정책방향성을 수립하고 각 주(시)와 위탁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다양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정책실현 기여

□ 시사점 및 활용계획

○ 독일의 가족정책

- 통일이후 정치경제 혼란으로 실업률 상승,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출산율 저하 등 문제발생에 따라 아동복지를 최우선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가족정책을 수립하여 아동수당, 휴직수당 등으로 소득을 보전하고,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노동 감소 및 돌봄지원으로 가족문제해결을 위해 민관의 적극적

협조로 정책실현

○ **한국의 가족정책**

-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 대응을 위해 대한민국 가족정책 역시 시대에 따라 급변해 왔으며 이로 인해 '가족정책의 철학'이 정립되기 보다는 문제발생에 대한 미봉책으로 단기간의 정책들이 수립되고 실행하는 형태로 '핵심 가족정책'이 무엇인지 정의하기에 어려움
-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중점사업 운영을 위한 자원투입 어려움

○ **추후 발전방안**

- 원활한 가족정책수행을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가족 정책의 철학 수립** 필요
- 가족정책 철학에 맞는 **기본 정책을 중심**으로 해당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 부여**
- 차후 가족정책사업 지침과 관련하여 가족정책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나. 대지급제도

□ **출장성과**

○ 독일 라인란트팔츠 주의 트리어시 청소년청의 양육비선지급 담당팀 등 양육비 관련 부서 담당자 면담

- 청소년청 양육비 담당 실무자들과 질의응답 실시하여 독일의 양육비 제도(양육비 선지급, 양육비집행권원 작성, 양육비구상 등) 운영 현황 파악 및 제도 이해도 증진파악 및 제도 이해도 증진

○ 독일과 우리나라 양육비 제도

구 분		우리나라	독일	시사점
전담 기구		· 여성가족부 산하의 공공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	·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산하 [청소년청(Jugendamt)]	· 전담기구의 권한 강화 필요
소재		· 서울에 전국 유일 소재	· 각 주·시·군 등 지자체별 전국적 소재	· 접근성 증대 위해 지부 마련 필요
양육비 선지급 및 구상	지원 대상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만 14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채권자	· 양육비선지급 – 만 12세 미만의 자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 18세까지 지급	· 양육비 지원 범위(지원 대상, 기간, 금액) 확대 검토 필요
	지원 기간	· 6개월에서 최대 9개월	· 기간 제한 없음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원)	· 민법에서 정하는 월 최소양육비의 한도(0~5세 : 154유로, 6~11세 : 205유로, 12~18세 : 273유로 정도)(아동수당 지급받고 있을 시 감경)	
	구상	O	O	
양육비 지원 방식		· 당사자 간의 직접 지급 방식 (양육비이행원은 어디까지나 제3자의 '이행지원')	· 청소년청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징수하여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구조	· 양육비 이행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양육비 징수 및 지급 권한 확보 필요
조사 권한		·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에만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소득·재산·금융> 조회 가능	· 비양육자는 소득·재산·금융 등 정보제공 의무 부담 · 비양육자의 고용주, 세무서 등의 기관은 비양육자의 거주지·소득·금융정보 등 정보제공 의무 부담	·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정보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 권한 강화 필요

□ 시사점 및 활용계획

○ 양육비이행원의 권한 강화

- 원활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육비이행원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정 권한 강화
- 양육비이행원이 양육비 징수 및 이체를 전담하는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검토 필요
- 양육비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증대된 예산을 확보한다면, 현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소득·재산 조회 권한 확대와 함께 적극적으로 미성년 자녀와 양육자를 지원할 수 있는 양육비 제도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임

○ 양육비 대지급 제도 검토

- 독일의 양육비 제도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중심으로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비양육자의 소득·재산 수준을 불문하고, 비양육자의 직접 이행 또는 비양육자로부터의 직접 추심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충당 수단의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현 제도와는 차이가 있음
- 현재 양육비 대지급 제도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서 도입을 검토중인 가운데, 실질적으로 비양육자가 부담이 가능한 수준의 양육비에 대하여 추심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양육비만큼은 국가에서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